

人生にあつての正しい 價値觀の役割 인생에 있어 올바른 가치관의 역할

진세에니 아테노 타다시이 아타이치칸노 야쿠와리

人は誰しもより、一層生き甲斐のあるものを探して見よう、もう少し、立派なものを探して見ようと努力するのが本能である。 사람은 누구나를 막론하고 좀 더 보람된 것을 찾아보려고, 좀 더 훌륭한 것을 찾아보려고 애쓰는 것은 본능입니다.

もっと甲斐のあるもの、値うちがあるものというのは各人それぞれの價値觀に従つて決まるのである。 좀 더 보람된 것 가치 있다는 것은 각자 그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その人がどこに價値を置いているかによってその心が動くようになっている。 그 사람이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에 따라 그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この世のすべての人達はその價値基準を誤っているのです。 그러나 이 세상사람들은 전부가 다 그 가치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것입니다.

この世の中で俗に値うちがあると考えるのは物質である。 이 세상에서 흔히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물질입니다.

物質によって望み通りのものが得られるので、物質に人生の價値を置くことになり、世の中は段だん物質万能主義の時代へ化して行く。 물질이 있으면 원하는 것이 얻어지는 고로 점점 더 물질에 인생의 가치를 두게 되고 세상은 점점 더 물질만능 주의의 시대로 화해가고 있습니다.

物質と權力和理性間の愛が與える喜びには限度がある 물질과 권력과 이성간의 사랑이 주는 기쁨에는 한계가 있다

しかしながら、物質は人生を完全に幸福にましてくれない。 그러나 물질을 가지고는 인생을 온전히 행복하게 해 주지 못합니다.

しばらくは我われに樂を與えてくれるかも知れないが、決して我われの人生を嬉しくしてくれない。 물질には限界がある。 잠시 잠깐 편안함을 줄지는 몰라도 결코 우리의 인생을 기쁘게 해 줄 수는 없습니다. 물질에는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人は誰でも幸せを望み、喜びを追求する。人が追求する價値は幸せなのである。 사람은 누구나 행복을 원하며 기쁨을 추구합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는 행복한 것입니다.

人が幸でなければ病氣にかかるようになり、苦痛と悩みがつきまとうようになる。不幸だから、結局、人は死ぬのである。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병이 들게 되어 있고 사람이 행복하지 못하면 고통과 괴로움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사람은 결국 죽는 것입니다.

だから、人が幸せを感じる事が出来ないというのは、本當に不幸な人生になることであり、不幸な人生の中で暮しているのは、まさにその價値基準が誤っているからである。 그러므로 사람이 행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은 가장 불행한 인생이 되는 것이요,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 가치 기준이 잘못되어 있는 까닭입니다.

ある人は幸せの基準を男女の出会いに焦点を合せている。 어떤 사람은 행복의 기준을 남녀의 만남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我われの人生の先輩達、我われの先祖達が歩いて來た足跡を見る時、多くの人達



が男女の間の愛に幸せの重要なポイントがあると考えた。 우리 인생의 선배들,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온 발자취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남녀간의 사랑 속에 행복의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しかし、男女の間の愛は傷を残して心に辛さだけを残して消えて行くのである。 그러나 남녀간의 사랑은 상처를 남기고 마음에 괴로운만 끼치고 사라져 가는 것입니다.

それは男女間の愛が欲望の理念から抜け出せない理由です。 그것은 남녀간의 사랑이 욕망의 이념을 벗어나지 못하는 까닭입니다.

男女の間の愛には幸せを分かち合うことが出来ないで、物質があれば幸福になると考えるのではないだろうか、物質を積んで置いた所に幸せがあると思ひ熱心にお金を稼いでお金を持ちこなしてみたが、やはりその所には幸せはないのである。 남녀간의 사랑으로는 행복이 이루어지지 않는 고로 물질만 있으면 행복하지 않을까 하여 물질을 쌓아놓은 곳에 행복이 있는 줄 알고 열심히 돈을 벌여 부자가 되어 봤지만 역시 그곳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だから、ある人は權力を握れば幸せを享受するだろうと思つて權力を握つて見たが、やはりそこにも幸せがなかったのである。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권력을 쥐면 행복을 누릴까 하여 권력을 잡아 보았지만 역시 거기에도 행복이 없었던 것입니다.

人間の主體靈は魔鬼の靈であるという驚くべきこと 인간의 주체영이 마귀의 영이라는 놀라운 사실을 발표한다

今日まで生の目的と理念が間違つて設定されるしかなかった理由は、全人類の主體靈が即ち魔鬼の靈であるというこの大變な事を知らなかったからです.

오늘날까지 왜 생의 목적과 이념이 잘못 설정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의 주체영이 바로 마귀영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실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魔鬼の靈は魔鬼の考えしか出来ない。 故に、魔鬼の靈は欲望の絆を抜け出すことが出来ない。 마귀의 영은 마귀의 생각 밖에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영은 욕망의 이념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この世の價値基準というの「私」という意識を抜け出して成り立つことが出来ないで、つまり、欲望の絆を抜け出すことができないので、その價値に限界がある哲學を生んだのである。 이 세상의 가치기준이라는 것은 '나'라는 의식을 벗어나서 성립될 수가 없으므로, 욕망의 이념을 벗어날 수가 없고, 욕망의 이념을 벗어날 수가 없으므로 말할 수 없이 그 가치에 한계가 있는 철학을 낳았던 것입니다.

私は人間の主體靈が魔鬼の靈であるという大變な事實を指摘するのである。 이 사람은 인간의 주체영이 마귀영이라고 하는 엄청난 사실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私」と言う主體靈が即ち魔鬼なのである。 '나'라고 하는 주체영이 바로 마귀인 것입니다.

「私」と言う主體靈によって不幸が来て、苦痛が来て、血が癩り、老いと死が来るのです。 '나' 라고 하는 주체영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오고, 고통이 오고, 피가 썩고, 늙음과 죽음이 오는 것입니다.

「私」は「私」という意識の範疇を抜け出すことが出来ない。 だから、限界が決められている狭い哲學を持つしかなかった。 '나'는 '나'라고 하는 의식의 범주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대단히 한계가 그어져 있는 좁다란 철학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神様の靈が支配する時代に變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시대로 바뀌어야만 한다

今日、人が生きるのはまさに神様の靈によって生きているのである。 오늘날 사람이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 때문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しかし、その神様の靈が「私」という魔鬼の靈に捕らわれ「私」という主体意識が支配をし、神様の靈は支配を受けるこのような残念な立場に置かれ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그러나 그 하나님의 영이 '나'라는 마귀의 영에게 사로잡혀 '나'라는 주체의식이 지배를 하고, 하나님의 영은 지배를 받는 이러한 안타까운 입장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だから、もとの人間の主體靈であつた神様の靈が魔鬼の靈に勝ち、神様の靈が支配する時代に變わらなければならない。 그러므로 본래 인간의 주체영이었던 하나님의 영이 마귀의 영을 이기고, 하나님의 영이 지배를 하는 시대로 바뀌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その時こそ人びとは幸せを取り戻すことになり、「生」の生き甲斐を得るようになれば、その時になってようやく死を知らぬ者となり、不安と恐怖、煩みと苦しみを知らず、涙と嘆きも知らずに美しく燦爛たる生を生きるようになっていく。 그래야 인생은 행복을 찾게 되고 인생은 삶의 보람을 찾게 되고, 그때 비로소 인생은 죽음도 모르고 불안 공포도 모르고 괴로움과 고통도 모르고 눈물과 탄식을 모르는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それ故に、今日、眞の學問が出てこそ人がどうして死に、人がどうして生き、人が死なずに幸福に暮らす秘訣について論ずることが出来るのである。 그런고로 오늘날 참학문이 나와야 사람이 왜 죽으며, 사람이 왜 살며, 사람이 죽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논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격암유록 新 해설
수정판 제 30회

양백궁을 십승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하도낙서에 밝혀놓은 천지조화이니라

생초지락(四) 生初之樂

訣云虎性無變化 결운호성무변화

單性之獸 단성지수

狗性亦無變化 구성역무변화

田性之獸 구성지수

牛性有變化難測 우성유변화난측

曉星天君天使 효성천군천사

民合稱者牛性也 민합칭자우성야

豈如虎狗之性也 기어호구지성야

然即轉脫其右 然즉정탈기우

落盤四九 낙반사우

利在十勝ヲ缺傳世 이재십승에결전세

世人不知可歎奈何 세인부지기탄奈何

東北五臺十二賊 동북오대십이적

三南五被青衣賊 삼남오피청의적

種骨種仁又種茫 종골종인우종망

萬人傷落幾人陽 만인상락기인양

桑田碧海混沌世 상전벽해혼돈세

白勝勝三安心處 백승승삼안심처

靑雀龜龍化出地 청雀구룡화출지

비결에 이르기를 호랑이의 성질은 변화가 없는 단순한 성질의 짐승이요 개의 성질 역시 옛날 습성 그대로 변함이 없는 짐승이다. 소의 성질은 변화무쌍하여 헤아리기 어려우니 셋별, 천군천사라고 하나니 백성들이 총칭하여 소의 성품이라 하는 것이다. 어찌 호랑이나 개의 성질과 같을 수 있겠는가?

그러한 즉 정(精)자에서 오른 쪽인 정(精)자를 탈락시키면 미(米)자만 남고 거기에서 뒷쪽지 네 개가 떨어져나 가면 십(十)자가 되니 비결과 예언서에 이로움이 십승에 있다(이재전전利在田田과 같은 뜻)고 한즉 이를 말하는 것인데도 세상 사람들이 이를 모르니 어찌 탄식하지 않을 수 있으리오

동북 간방에 진리도 없이 세상 사람들속에서 등재먹는 열두 도적이 큰 집 다섯을 지어 놓고 있고 삼남(三南) 즉 경상, 전라, 충청도에는 푸른 옷을 입은 도적이 다섯이 있느니라. 맹목적인 골수분자, 위선적인 사기꾼, 흐리멍덩한 사람들의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낙심케 한 그들 중 몇이나 양도(陽道-빛의 길)를 찾을 수 있겠는가?

상전벽해(桑田碧海) 즉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가 되는 것 같이 급격한 대변화와 큰 혼돈이 있어도 양백 삼풍의 십승지는 영원한 안심처가 되느니라. 천지운행의 조화로 삼풍 해인을 가지고 오신 십승인 정도령이 출현하는 곳이요 천하 만민의 피란처요 안심처가 바로 한국 땅이니라. 청(靑)은 청룡이요 작(雀)은 주작을 뜻하며 동(東)은 청룡(靑龍), 서(西)는 백호(白虎), 남(南)은 주작(朱雀), 북(北)은 현무(玄武)를 말한다. 구룡(龜龍)은 하도낙서를 말한다.



따라서 청작구룡화출지(靑雀龜龍化出地)는 6도 삼락의 3도 54궁에 수운(水運), 4도 63궁에 화운 강중산(南南), 5도 72궁 목운(東東), 6도 81궁 금운(西西)이 하도낙서의 이치에 의거하여 천지조화를 따라 모두 한국에서 나오게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금운으로 오신 6도 81궁 정도령이 감로해인을 가지고 와서 천지공사 즉 죽음의 세상을 끝내고 불사영생의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須從走林 수종주청림
人毅出種聖山地 인곡출종성산지
三災八難不入處 삼재팔난불입처
二十八宿共同回 이십팔수공동회
紫霞山中朝鮮鮮 자하선중남조선
南來鄭氏 남래정씨
陰陽合德 眞人來 음양합덕 진인래
鄭氏龜龍千年定 정씨계룡천년정
趙氏伽那亦千年 조씨가가야역천년
范氏完山七百年 범씨완산칠백년

王氏松濼五百年 왕씨송악오백년
非鄭爲鄭非范非趙 비정위정범비조
爲趙非王氏是故 위조비왕씨이고
先天太白數再定 선천태백수재정
小白後天數是故 소백후천수시고
弓乙兩白間 弓을양백간
圖書分明造化定 도서분명조화정

모름지기 목숨을 보전하러거든 청림으로 달리기야 하느니라. 청(靑)은 동방이요 림(林)은 손진양목(俄震兩木)이니 계룡산(산 이름이 아님)과 같은 뜻으로 정도령(6도 81궁)을 말한다. 청림도사가 계신 곳은 알곡과 같은 참인간 종자를 배출하는 성산성지요, 삼재팔난이 들어오지 못하는 곳이요, 하늘의 28수 별자리의 정기가 모여 돌아오는 자줏빛 신선의 기운이 깃든 남조선(한국)하고도 소사 땅이니라. 28수(宿)는 각항지방삼미기(동東) 두우여허위실벽(북北) 규우위묘필자삼(서西) 정기유성장익진(남南)의 28개의 별자리를 말

한다. 남조선(한국)으로 오신 정도령은 무극대도를 완성하시고 진인으로 오셨느니라. 진인(참사람)은 진아(참나)를 찾은 사람이요 진아(참나)는 바로 하나님이니(진아일신유거지궁眞我一神依居之宮: 단군세기) 진인은 마귀를 이기신 삼위일체 하도님이 좌정하신 분이요 사인불인천신강(似人不人天神降) 즉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강림하신 분이요. 정씨는 계룡산에 천년 도읍을 정하고 조씨 또한 가야산에 천년 도읍을 정하고 범씨는 원산에서 칠백년, 왕씨는 송악산에서 오백년 도읍을 정했다고 한 것은 세간에서

말하는 산 이름이나 지명이 아닌 천기를 감추기 위한 것이며 정도령(正道令)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말한 것이다. 정(鄭)씨 성이 아닌 사람이 정도령(正道令)이 되고 범(范)씨는 아니며 조(趙)씨 성이 아닌 조(曹)씨로서 왕씨는 아니다. 그러므로 천천의 태백수와 다시 후천의 소백수로 정해진 궁을(弓乙)의 양백 십승의 출현은 하나님께서 하도낙서에 이미 분명하게 정해 놓으신 천지조화이니라.*

박명하 / 고서연구가
myunghpark23@naver.com
010-3912-5953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02-134421 예금주 : 이승우

승리신문은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으로 만들어집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승리신문 1990.3.3 등록번호 다 - 0029

발행인 **윤봉수** 편집인 **박태선**

본지는 구세주(정도령, 미륵불)께서 말씀하신 사람됨이 실제로 죽지않는 원리(영생학)를 누구든지 쉽게 배우고 실천할 수 있도록 소개하여 질병과 죽음이 없는 개벽된 세상을 만들고 진정한 평화의 세계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발행됩니다.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안곡로 205번길 37 **광고 및 구독신청**
우 14679 전화 032) 343-9985
홈페이지 www.victor.or.kr **FAX** 032) 349-0202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